

원저

山蔘에 대한 文獻的 考察

권기록* · 위종성* · 김성욱**

Ki-Rok Kwon* · Jong-Song Owi · Seong-wook,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tion, Oriental Medical College, Sangji University

**Oriental Medical College, Sangji University

Objective :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산삼의 기원과 산삼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인삼과의 차이점 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Results : 1. 蔘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연대는 BC 50년경이고, 처방으로는 AD 200년경 상한론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2. 인삼재배시기를 14세기라고 가정하고, 그 이전의 의서에 기재되어있는 인삼은 산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15세기 전후의 醫書를 비교해 볼 때 인삼의 氣味, 效能 그리고 主治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4. 五加科 식물 人蔘이 자생적으로 산에서 자란 것을 野山蔘(山蔘), 재배한 것을 園蔘(人蔘), 어린 野山蔘(山蔘)을 밭에 옮겨 키웠거나, 어린 園蔘(人蔘)을 산에 옮겨 키운것을 移山蔘(山養山蔘)이라 한다.
 5. 산삼의 수령은 너두의 수나 몸체에 형성된 띠(橫皴)의 수, 그리고 잎과 줄기의 모양 등을 관찰하여 추정하고 있다.
 6. 인삼의 약리학적인 효능은 신경계통, 생체의 반응성, 내분비 계통, 물질 대사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1. 서론

산삼은 야생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아하여 성장한 삼을 말하며, 예로부터 가장 귀한 약재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蔘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기록은 BC 48-33년대에 해당하는 중국 前漢의 元帝 시대 때 쓰여진 史遊의 『急就章』이며, 秦漢時代의 醫書인 神農本草經¹⁾이나 仲景全書²⁾에 이미 사용법이 소개될 만큼 대표적인 補氣劑이다³⁾. 사람이 삼을 재배하기 전에 문헌에 표기되어 있는 삼이 산삼을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삼과 관련된 연구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그 수가 희박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둘째, 산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산삼의 진위여부에 관한 감별이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넷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실질적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산삼을 이용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산삼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삼이 재배되기 이전과 재배된 이후에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서 차이점을 검토하고, 인삼과 산삼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한의학문헌에서 산삼과 인삼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재배 초기에는 산삼의 씨를 받아 인위적으로 재배하였으므로 인삼이 산삼의 효능과 비슷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인삼은 산삼에 비해 몸체가 매우 크고, 또한 6년 이상 재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산삼은 100년 이상 자연상태에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대략적인 인삼의 재배시기를 고려말로 보고 조선 건국시기인 14세기 이전의 의서와 그 이후의 醫書에서 제시하고 있는 性味, 效能, 主治 등을 비교하고, 산삼의 특징 등을 고찰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 론

1. 蔘의 起源

蔘은 五加科(주릅나무과 ;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목인 인삼(*panax ginseng* C. A. Mey.)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⁹⁾.

2. 蔘의 분류

五加科 人蔘이 자생적으로 산에서 자란 것을 野山蔘, 재배한 것을 圓蔘, 어린 野山蔘을 밭에 옮겨 키웠거나 어린 圓蔘을 산에 옮겨 키운 것을 移山蔘이라 한다⁹⁾.

신등은 人蔘은 인위적으로 밭이나 논에서 재배한 蔘을 말하고, 山蔘은 야생(특히 산)에 자연 발생적으로 밭아하여 성장한 蔘을 말하며, 山養山蔘(樟腦蔘)은 山蔘과 山蔘의 삼씨나 幼蔘을 인위적으로 산에서 재배한 蔘을 말한다고 보고하였다⁹⁾.

3. 인삼과 타국의 삼과의 비교

蔘은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도 발견되나 미국의 北美蔘(美國蔘, 廣東蔘, *Panax quinquefolium* L.), 일본의 竹節蔘(*Panax japonicum* C.A Meyer), 중국의 三七蔘(田七蔘, *Panax notoginseng* Burk) 등은 같은 *Panax* 속이긴 하지만 고려인삼의 학명인 *Panax ginseng* C.A. Meyer와는 종류와 형태가 전혀 다르다. 또 시베리아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시베리아삼이라고 하는 것은 *Panax*

속도 아닌 가시오가피나무(*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im)라는 목본식물이어서 인삼과는 분명히 다른 식물이다⁹⁾.

4. 산삼의 분포

인삼의 자생지를 보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의 만주, 소련, 일본, 미국 및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⁹⁾. *Panax* 속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자연조건으로서 ① 냉습한 낙엽성 森林, ② 분명한 동계의 寒冷衝擊, 성장계절인 하계의 충분한 강우량이 지적되고 있다.

산삼의 분포는 옛날 문헌에 나오는 인삼의 분포와 같을 것이다. 산삼의 산지는 북반구권이며 그 중에서도 온대의 양냉한 지대이다. 위도상으로 보면 북위 30~48도에 이르는 지역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남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산삼이 자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북부산악지대의 일부와 강원도 태백산, 오대산 및 지리산 일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만주에서는 북위 43~47도, 동경 117~143도의 장백산 일대와 흑룡강 일대의 밀림지대, 그리고, 길림성 일대에서 산출되고 있다. 또 러시아 지방에선 북위 43~48도까지의 연해주 하바로스크 남북지방이 시호테아린 산맥일대에서 산출되고 있다.

산삼은 밀림지대에서 잘 자란다. 즉 소나무와 떡갈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피나무, 옷나무 등의 낙엽이 잘 부숙된 산림의 갈색부식토에서 자생하고 있다. 이때 산도는 pH 6.1~6.3정도이고 여름의 기온이 섭씨 20°C내외의 서늘한 곳이어야 하나, 겨울의 기온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徐有渠가 지은 『林園十六志』의 灌畦志(種蔘謙)에 의하면 “산삼이 나서 자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삼의 성질은 물을 좋아하나 습기를 싫어하고 음을 좋아한다. 만일 삼이 싹이 튼다 하더라도 땅위가 마르고 밀이 습하고 부식토가 얇거나 햇볕이 하루 종일 강하게 쪼이거나 암석이 첩첩이 싸여 오랫동안 陽光이 없으면 모두 자라지 못한다. 반드시 토질이 비옥하고 윤하며 삼림이 우거지고 높은 수림의 잎 사이로 햇볕이 가늘게 산란관이 되어 환하게 들어오는 곳이라야 자란다. 산삼이 이런 이유에서 싹이 텄다 하더라도 쓸만하게 성장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것이 산삼이 자라기 어렵다는 이유이다.”라고 했다. 이 기록을 요약하면 산삼은 ① 非旱 ② 非濕 ③ 非陰 ④ 非陽, 즉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으며, 지나치게 응달도 아니고, 지나치게 양달도 아닌 곳에서만 자란다고 볼 수 있다.

5. 산삼과 인삼의 비교

신등은 인삼, 산삼을 비교를 산삼이 인삼에 비해 뇌두가 작으며, 몸통은 인삼보다 가늘고, 모양에 있어서 인삼이 1(일)자형의 直蔘이나 ㅅ(시웃)자형이 많은 반면에 산삼은 ㄴ(니은)자형, 山(피산)자형, ㄱ(오)자형, ㄷ(디근)자형, ㅅ(시웃)자형, 大(큰대)자형, 1(일)자형, V(브이)자형, 0(이응)자형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⁶⁾. 그리고, 산삼엔 몸체에 횡皺(橫皺)가 있고, 뿌리에 옥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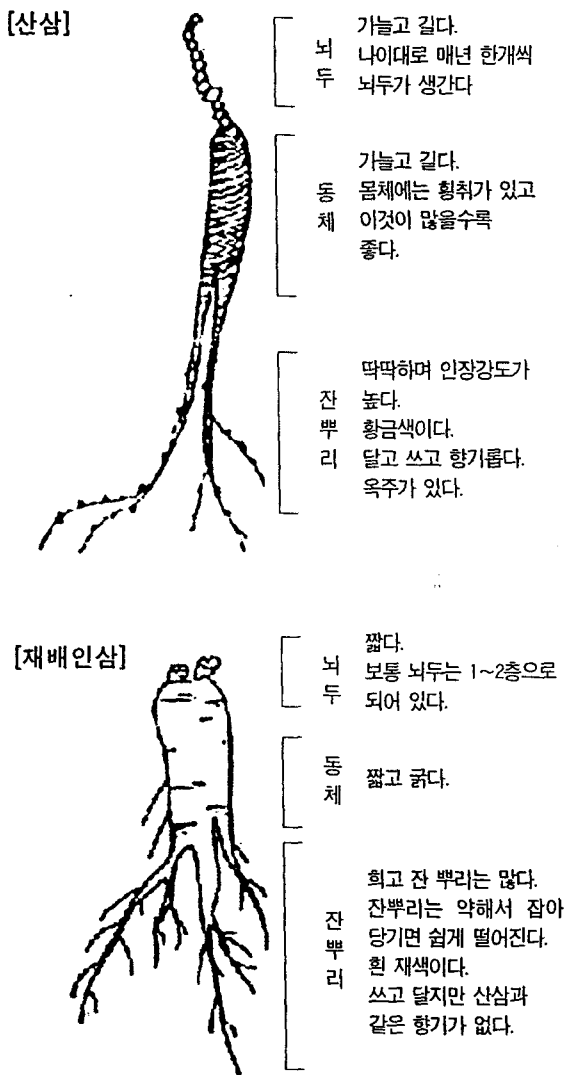


Fig. 1. 산삼과 인삼의 비교

6. 산삼의 나이추정

산삼의 생존연수에 관해서 정설이나 과학적인 정보는 없기에 보통 구전과 경험에 의한다. 다음은 구전과 경험에 의한 산삼의 나이 추정법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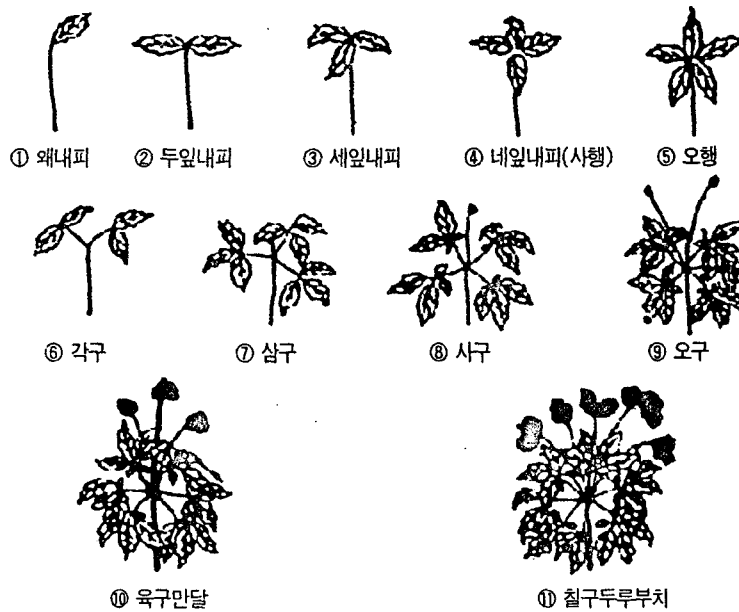
첫째, 산삼의 나이는 동체 위에 기린의 목모양으로 길게 뻗은 뇌두(腦頭)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이 뇌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묵은 산삼이다. 뇌두는 줄기가 붙었던 자리로서 줄기가 말라죽음으로써 생기는 흔적이고, 정확하게 매년 1개씩 붙어 올라간다. 그러므로 뇌두의 숫자는 의심할 바 없이 그 산삼의 나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뇌두의 숫자가 30개면 산삼의 나이도 30세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산삼이 여러 가지 이유로 휴면하게 되는데, 잠자는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잠들었던 햇수도 가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면을 한 산삼의 뇌두를 뇌두같이라 한다. 휴면을 시작한 뇌두 부위는 다른 뇌두보다 약간 크다. 또 뇌두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뇌두가 발생하는 장소도 토양의 영양상태가 달라지면, 새싹은 옛 자리 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 뇌두가 생긴 뿌리부분에서 새로 형성된다. 그리고 전에 있던 긴 뇌두는 말라 그 흔적이 없어지고 만다. 그 흔적을 확대경 등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약간 보이기도 한다. 이때 단지 뇌두의 수로써만 판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성된 뇌두의 숫자는 실제의 나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또 산삼이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자라면 뇌두가 실같이 가늘게 된다.

둘째, 산삼의 몸체에 수평으로 생기는 橫皺라는 띠(흠질)로써 확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몸 전체가 마치 작은 가락지를 많이 끼워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심마니들은 이 가락지로 산삼의 나이를 추정한다. 고려산삼은 가락지가 수평으로 생기나 미국산삼은 뇌두를 중심으로 위로 향해서 생겨있다. 가락지는 산삼뿌리가 땅 밑으로 수축하면서 파고들 때 생기는 것으로 이 가락지의 생김새는 뿌리의 수축정도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심마니들은 이 가락지가 많고 깊은 것을 상품(上品)으로 친다. 가락지는 종행(種行)과 횡행(橫行)이 있는데 횡행으로 상향(上向)하고 있는 것을 하품(下品)으로 취급하고, 하향(下向)하고 있는 것을 상품으로 친다. 또 뇌두 가까이 가락지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산삼은 휴면하고 있을 동안에는 가락지가 생기지 않는

다. 또 가락지에는 가짜가 있다. 실로써 인삼의 몸체를 돌려 매어서 실의 흔적을 삼의 몸체에 남긴 것으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락지와 거의 다름이 없다. 다만, 자연으로 생긴 가락지는 그 굵기가 고르자 못하는데 실로써 만든 것은 거의 고르게 보인다.

셋째, 지상부(地上部)인 줄기나 잎의 모양과 발육정도를 보고 산삼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 산삼은 보통 3년이 지나야 겨우 2개의 잎을 달고, 4년째에 3잎, 5년째

에 4잎, 6년이 지나야 5개의 잎을 가진다. 그러나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자란 산삼은 7~8년이 되어야 겨우 한 장의 잎을 갖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줄기나 잎으로 산삼의 나이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힘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심마니들은 아래 그림에서 ⑥은 최소 6~12년, ⑦은 30~50년, ⑧은 80~90년, ⑨는 100~200년, ⑩은 200년, ⑪은 20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잎의 숫자와 산삼의 나이]

Fig. 2. 잎의 숫자와 모양으로 본 산삼의 나이 추정법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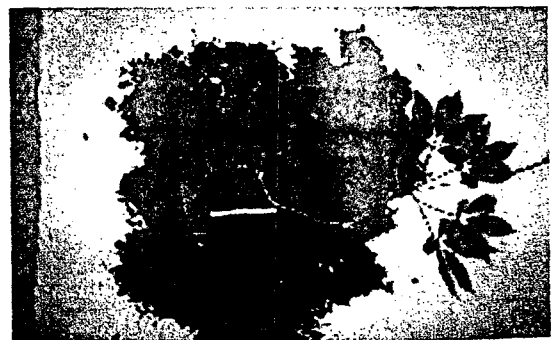


Fig. 4

Fig. 3-4. 수령 100년 이상의 산삼(오구의 형태로 잎을 형성하고 있다.)



Fig. 5



Fig. 6

Fig. 5-6. 수령 80-90년의 산삼(사구의 형태로 잎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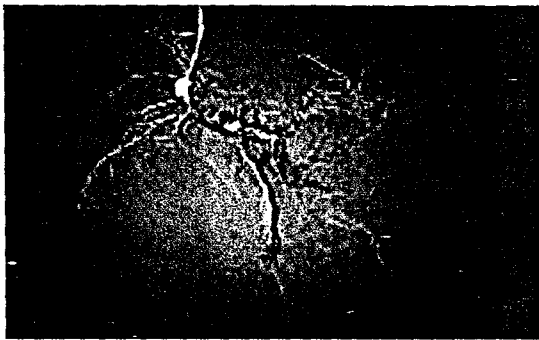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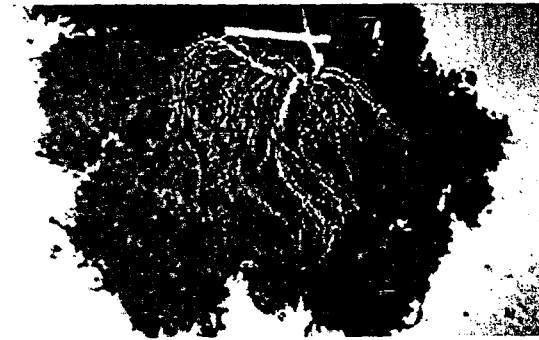


Fig. 8

Fig. 7-8. 산삼의 형태(일자형이나 ㄱ자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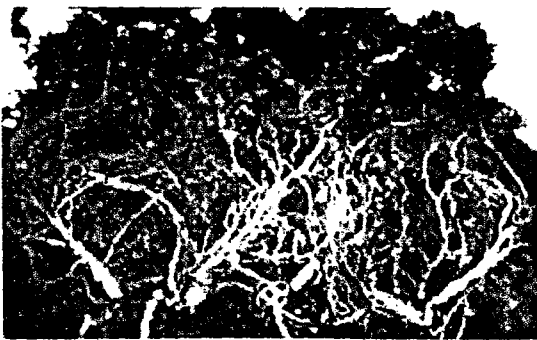


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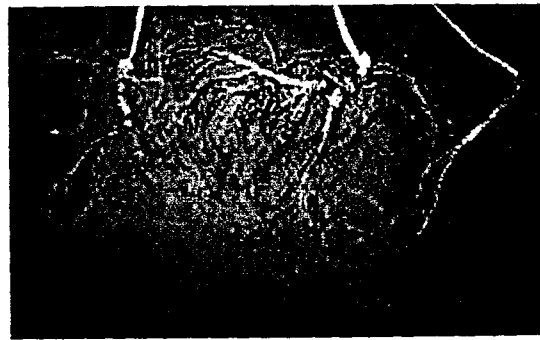


Fig. 10

Fig. 9-10. 다양한 산삼의 형태

7. 歷史書에서의 蔘

蔘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기록은 BC 48-33년대에 해당하는 중국 前漢의 元帝 시대 때 쓰여진 史遊의 『急就章』이며, 타 약재와의 나열로 되어있다. 이후 前漢末 『春秋緯』와 『禮緯』에 蔘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 이후 後漢安帝 시대에 許慎의 『說文』에 “人(蔘+蓂-1)이란 명칭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BC 57년대 삼국시대 때 민간에서 인삼이 약용으로 이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三國史記』와 陶弘景의 『名醫別錄』에 따르면 百濟 武寧王 12년이 되는 513년 12월에 梁나라의 武帝에게 人蔘이 조공으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있다.

처방에 관한 기록으로는 AD 196~220년대 『傷寒論』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113개의 처방 중 21개의 처방에 人蔘이 포함되어있고, 이후 AD483~496년대 중국 梁나라 陶弘景의 『神農本草經』에 人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리게 된다. 그 이후에 많은 서적에서 山蔘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하나, 거의 모든 책에 山蔘이란 표현 대신 생김새가 사람과 닮았다는 의미에서의 人蔘이란 표현을 쓰게 된다. 宋나라의 寇宗奭은 『本草衍義』에서 “지금 쓰는 것은 河北에서 나온 것이 많으나 사실은 고려에서 나온 것이며, 고려의 것이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하여 山蔘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그 이후 淸나라의 閔鉞이 지은 『本草詳節』에도 “生陰濕山谷 紫大稍扁 名紫團蔘, 出潞州 白堅而圓 名白修蔘, 出百濟 黃潤纖長 有鬚, 名黃蔘 出遼東上黨高麗蔘 近紫體虛, 新羅蔘 亞黃味薄, 惟黃蔘第一.”라고 하여 人蔘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그러나 이렇듯 국내산 山蔘의 효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자 자연히 천연산의 채취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인위적인 人蔘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조선 『世宗實錄』을 살펴보면 山蔘 채취 때문에 백성의 고통이 크다고 하는 상소가 여러 번 올라갈 정도로 산삼이 귀하게 되자, 正宗 14년 梁山郡守의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영남지방이 비록 예전부터 산삼의 고장이라고 불려지고는 있지만 산삼이 점차 귀하게 되어 이제는 家種品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人蔘재배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明代의 李時珍의 『本草綱目』 중에 “赤可收子於十月 下種如種菜法”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 人蔘이 재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英祖 때에 人蔘재배는 크게 발전하였고 전국적으로 성행하였으며, 憲宗 초년 개성의 보부상인 崔文은 여러 지방의 인삼경작을 목격하고 개성의 풍토에 알맞은 인삼의 집약재배법을 고안하였다.

8. 山蔘의 異名

人蔘, 鬼蓋²⁾, 土精, 神草, 黃蔘, 血蔘, 人微, 玉精³⁾, 人蓂, 海蔘, 皺面還丹⁴⁾ 神草, 地精⁵⁾ 二精⁶⁾

9. 山蔘의 氣味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氣는 微寒, 微溫, 溫 등이고 味는 甘, 苦로 나타났으며, 無毒, 有毒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삼의 재배가 시작되었을 14세기 이전과 이후에서 기미에 있어선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10. 산삼의 효능 및 주치

대부분의 의서에서 『神農本草經』에서 나와있는 효능인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⁷⁾와 “大補肺中元氣”를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기가 지나갈수록 효능이 구체화되어지긴 하였으나, 인삼 재배전과 후에 있어서의 효능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1) 15세기 이전의 의서

(1) 神農本草經²⁾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

(2) 重修政和經史證類備急本草⁸⁾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療腸胃中冷, 心腹鼓痛, 脅脇逆滿, 霍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脈, 破堅積, 令人不忘 久服輕身延年

(3) 湯液本草⁹⁾

人蔘, 味既甘溫, 調中益氣, 卽補肺之陽, 泄肺之陰也. 若便言補肺, 而不論陰陽寒熱, 何氣不足, 則誤矣. 若肺受寒邪, 宜此補之, 肺受火邪, 不宜用也. 肺爲清肅之臟, 貴涼而不

Table 1. 산삼의 氣味丑

	편찬시기	氣	味	毒
神農本草經 ²⁾	秦漢時代	微寒	甘	
吳普本草 ¹²⁾	3세기	小寒	甘, 苦	無毒, 有毒
重修政和經史證類備急 本草 ¹⁴⁾	1108	微寒, 微溫	甘	無毒
湯液本草 ¹⁵⁾	1289	氣溫, 微寒	甘, 甘而微苦	無毒
本草發揮 ¹⁶⁾	明初	微溫	甘	無毒
本草集要 ¹⁷⁾	1500년경	氣溫, 微寒, 氣味俱輕, 陽也. 陽中微陰	甘	無毒
本草蒙筌 ¹⁸⁾	1525	氣溫, 微寒	甘	
醫學入門 ¹³⁾	1575	溫	甘	
本草綱目 ¹¹⁾	1590	微寒	甘	無毒
本草備要 ¹⁹⁾	1694	生: 微涼, 熟: 溫	生: 甘 熟: 甘	
本草逢原 ²⁰⁾	1695	溫	甘	無毒
本草詩箋 ²¹⁾	1739	微溫	甘	
神農本草經百種錄 ⁸⁾	1739	微寒	甘	
本草從新 ²²⁾	1757	溫	甘, 微苦	
本草崇原 ²³⁾	1767	微寒	甘	無毒

貴熱, 其象可知, 若傷熱則宜沙參. 人參補五藏之陽也, 沙參苦微寒, 補五藏之陰也, 安得不異.

(4) 本草發揮¹⁶⁾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霍亂吐逆, 調中止消渴, 通血脈

2) 15세기 이후의 의서

(1) 本草集要¹⁷⁾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開心, 益志調中, 生津通血脈, 治五勞七傷, 虛損肺脾, 陽氣不足, 短氣少氣, 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脇鼓滿, 霍亂吐逆, 及胃, 久服輕身延年.

(2) 本草蒙筌¹⁸⁾

定咳嗽, 通暢血脈, 瀉陰火, 滋補元陽.

(3) 醫學入門¹³⁾

止渴調中利濕痰 明目開心通血脈 安魂定魄解虛勞.

(4) 本草綱目¹¹⁾

治男婦一切虛症, 發熱自汗, 眩暈頭痛, 反胃吐食, 痰瘧, 滑瀉久痢, 小便頻數, 淋瀝, 勞因內傷, 中風, 中暑, 痿痺, 吐血, 咳血, 下血, 血淋, 血崩, 胎前產後諸病.

(5) 本草詳節¹⁰⁾

主補五臟, 安精神, 健脈理中, 生津止渴, 除夢瀉驚悸, 補肺胃中腸氣不足, 瀉心肺脾胃中伏火, 治肺痿, 胸痰, 嘔噦, 反胃, 痰(疒+雪), 痢疾, 冷氣逆上, 心腹鼓痛, 胸脇逆滿, 霍亂, 瀉痢, 小便頻數, 淋瀝, 勞倦內傷, 中風中暑, 又及一切血症, 胎前產後, 一切虛症, 發熱自汗

(6) 本草備要¹⁹⁾

大補肺中元氣, 瀉火, 益土生金, 明目開心益智, 添精神, 定驚悸, 除煩渴, 通血脈, 破堅積, 消痰水. 治虛勞內傷, 發熱自汗, 多夢紛紜, 嘔噦, 反胃, 虛痰喘促, 瘧痢, 滑瀉. 淋瀝脹滿, 中暑中風, 急一切血證,

(7) 本經逢源²⁰⁾

能補肺中元氣, 肺氣旺, 四臟之氣皆旺, 精自生而形自盛, 肺主諸氣故也.

(8) 本草詩箋²¹⁾

人蔘功大益精神...保元旺血除邪氣. 明目開心利弱身...

(9) 神農本草經百種錄²⁾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

(10) 本草從新²²⁾

大補肺中元氣. 瀉火, 除煩`生津止渴`開心益智, 聰耳明目, 安精神定魂魄`止驚悸`通血脈, 破堅積 消痰水, ... 治虛勞內傷, 發熱自汗, 虛痰喘促 心腹寒滿, 傷寒, 瘟疫, 嘔噦反胃`痰癰瀉痢, 淋瀝, 脹滿, 多夢紛紜`離婚異疾. 妊娠吐水, 胎產諸虛`小兒慢驚`痘科險證

(11) 本草崇原²³⁾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

12. 기존에 보고된 蔘의 약리작용

(1) 신경계통에 대한 영향

삼은 중추 신경 계통 특히 고차 신경 계통에 대해 특이한 작용이 있으며, 동물의 뇌파 및 조건 반사에 있어 주로 대뇌 피질의 흥분 과정과 동시에 억제 과정을 강화시키고 신경 활동의 기민성을 개선시킨다. 또한 알코올과 몰핀이 조건 반사에 대하여 일으키는 억제 작용을 길항하며 사람의 뇌의 기능과 체력의 기능을 높이는 작용을 하며 동물에 있어 항 피로작용이 있다.4)

(2) 생체의 반응성에 대한 영향

삼은 자오가나 북오미자와 비슷해 adaptogen(적응원)과 작용한다. 즉 생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해로운 자극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며 독성 물질(benzene, phenyl-hydrazine, 4-ethyl연(鉛), tricresyl 인산 TOCP)이 생체에 대해 일으키는 작용을 약화시키고 B1, B2의 결핍으로 인하여 생긴 증상과 알레르기성 쇼크에 대하여 좋은 영향이 있다.

(3) 내분비 계통에 대한 영향

- ① 하수체-부신피질계통에 대한 영향 : 신경-하수체-부신피질계통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인삼에서 추출한 여러 가지 인삼 배당체(glycoside)는 뚜렷한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으며 마우스의 부신, 흉선, 비장, 갑상선 등에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의한 중량 변화를 뚜렷하게 억제하며 부신내의 비타민 C 및 cholesterol치, 뇨중의 17-ketosterol, 혈당과 glycogen에 대해서도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⁵⁾.
- ② 성선에 대한 영향 : 인삼에는 성호르몬 작용이 없으나 하수체를 흥분시켜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이미 성숙된 암컷 Rat에 대해서는 발정시간을 연장시킨다⁶⁾.
- ③ 기타 내분비선에 대한 영향 : 인삼을 단기간 대량 투여하면 토끼의 갑상선 기능이 높아지고 장기간 투여하면 흰쥐의 갑상선 기능이 억제된다. 인삼의 뿌리, 줄기, 잎에는 항 이노작용이 있다.

(4) 물질 대사에 대한 영향

적당한 양의 인삼은 토끼의 체중을 증가시키고 암컷 Rat의 성장, 식욕, 단백질 및 간장 리보핵산의 합성에 대하여 촉진 작용이 있으며, 분비형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한다. 또한 DNA의 생합성이 왕성한 조직, 예를 들어 rat의 골수, 고환 중에 대한 in vivo 혹은 in vitro 실험에서 모두 DNA 단백질의 생합성에 대하여 '속효성'의 촉진 작용이 있다.

(5) 순환계통에 대한 영향

- ① 심장에 대한 영향 : 두꺼비의 적출 심장과 토끼, 고양이와 개의 in vivo 심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강심 작용이 있다. chloroformadrenaline에 의해 생긴 부정맥을 경감시키거나 없앤다. 또 고양이와 개의 심실 세동시의 심근무력을 상당히 개선시킨다.
- ② 혈압에 대한 영향 : 마취한 동물에게 인삼을 소량 투여하면 혈압이 약간 높아지지만 대량 투여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6) 기타작용

rat의 실험적 위궤양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와 예방 작용이 있다. 또한 인삼의 총 glycoside와 다당 부분은 동물의 방사선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Tris 완충액으로 추출한 인삼의 성분 (panabolide)은 개구리의 복직근에 대하여 acetylcholine 과 같은 작용이 있다.

III. 결 론

1. 삼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연대는 BC 50년경이고, 처방으로는 AD 200년경 상한론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2. 인삼재배시기를 14세기라고 가정하고, 그 이전의 의서에 기재되어있는 인삼은 산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15세기 전후의 醫書를 비교해 볼 때 인삼의 氣味, 效能 그리고 主治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4. 五加科 식물 人蓼이 자생적으로 산에서 자란 것을 野山蓼(山蓼), 재배한 것을 圓蓼(人蓼), 어린 野山蓼(山蓼)을 밭에 옮겨 키웠거나, 어린 圓蓼(人蓼)을 산에 옮겨 키운것을 移山蓼(山養山蓼)이라 한다.
5. 산삼의 수령은 너두의 수나 몸체에 형성된 띠(橫皺)의 수, 그리고 잎과 줄기의 모양 등을 관찰하여 추정하고 있다.
6. 인삼의 약리학적인 효능은 신경계통, 생체의 반응성, 내분비 계통, 물질 대사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參考文獻

1. 朝鮮總督府專賣局, 人蓼史, 서울, 法人文化社, pp3-5, 1990.

2. 單書健, 神農本草經校證, 吉林科學技術出版社 p150, 1988.
3. 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pp130, 170, 208, 1986.
4.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공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p 531, 1994.
5. 중약대사전편찬위원회, 완역중약대사전 권7, 서울, 정담, pp 3473-3479, 1997.
6. 신순식 외 5인, 산삼 감정 기준의 객관성, 한의학 연구소 동의 한의연 제 5집, pp 107-114. 2001.12.
7. 최진호, 인삼의 신비, 서울, 교문사, p 13-14, 1984.
8. 徐靈胎, 神農本草經百種錄,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p1102, 1998.
9.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의성당, p 48, 1994.
10. 閔鉞, 本草詳節, 歷代本草精華叢書 六,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1.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p 699, p 701. 1982.
12. 吳普, 吳普本草, 人民衛生出版社 p 14, 1987.
13. 李梴, 醫學入門, 서울, 대성출판사, p 400, 1997
14.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南天書局有限公司, p145.
15. 王好古, 湯液本草,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p 30-31, 1998.
16. 徐彥純, 本草發揮, 歷代本草精華叢書 二,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7. 王綸 撰, 本草集要, 歷代本草精華叢書 三,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8. 陳嘉謨, 本草蒙筌,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p 80-81, 1998.
19. 汪昂, 本草備要,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p 242-243, 1998.
20. 張璐, 本經逢源,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p 369-370, 1998.
21. 朱輪, 本草詩箋, 台北, 旋風出版社 p 37.
22.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p 1, 1989.
23. 張志聰, 本草崇原,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p 1033, 1998.